

실증정신 외면하고 독단과 편견만 가득해

《고대한일관계와 일본서기》

연민수 | 동국대 사학과 강사



최재석 지음
일지사/A5신/446면/18,000원

《고대한일관계와 일본서기》(일지사)는 제목이 말해주듯 고대 한일관계사에 관한 논문집이다. 이 책이 이용한 사료는 고대 한일관계에 대한 풍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일본서기》다. 국내 사료가 빈약한 상태에서 《일본서기》는 이 분야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사료성의 문제 때문에 철저한 문헌비판 없이는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는 사서기도 하다. 저명한 사회학자기도 한 지은이가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로 1990년에 첫 논문집이 나온 이래 수많은 논문을 집필해냈다. 이 책의 서문에 따르면 “이로써 필자의 고대 한일관계사의 추구의 강행군은 120여편의 논고로 구성되는 7권의 저서와 한 권의 개설서의 완간으로 일단 끝을 맺게 된다. 감개무량하다”고 술회한다. 불과 10여년 사이에 120여편의 논문과 8권의 저서를 냈으니 그 필력이 놀라울 따름이다.

고대 일본의 국가적 실체 무시해

《일본서기》는 일본고대의 천황권을 확립한 천무조(天武朝) 때 편찬되기 시작해 720년 천무천황의 아들인 사인친왕(舍人親王)의 이름으로 완성됐다. 《일본서기》는 천황제 율령국가의 통치 정당성과 유구성을 주장하기 위해 편찬된 사서지만,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제국을 번국, 조공국으로 보는 일본 우월적 대외관념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따라서 윤색, 과장, 조작된 기사를 제거하고 그로부터 객관적 사실을 적출해 내는 일이 《일본서기》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초작업이다.

고대 한일관계를 보는 이 책의 시각은 철저한 이분법적 논리로 일관했다. 즉 고대 한일관계를 문명과 야만, 지배와 복종이라는 틀 속에서 사료

를 해석한 것이다. 이런 논리구조 속에서 기계적으로 사료를 조작해 나간다. 국제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배와 침략에 대한 대응과 저항, 자국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외교라는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지배에 대한 순응과 복종만이 존재할 뿐이다. 역사학의 기초는 철저한 실증이다. 그리고 실증은 과학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도외시할 경우 역사논문의 본질은 상실돼 버린다.

이 책의 논리를 알 수 있는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야마토왜(大和倭)에 고도의 문명을 지닌 백제인의 집단이주민이 정착 ... 아메리카 인디언이 거주하는 미대륙에 앵글로색슨족이 상륙한 것과 동일한 상황” “백제와 대화왜의 관계가 종주국과 속국 내지 직할령의 관계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대화왜의 통치는 백제왕→대화왜 파견 백제관리→소가(蘇我)의 명령계통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라는 기술에서 드러나듯, 고대 일본의 국가적 실체는 완전히 무시돼 있다. 백제가 왕족이나 관리를 파견해 대화왜를 경영했다는 도식은 무슨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참으로 답답해진다. 지은이가 근거로 제시한 사료에

서 이런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지은이의 무지로밖에 볼 수 없다.

허점투성이의 자의적인 사료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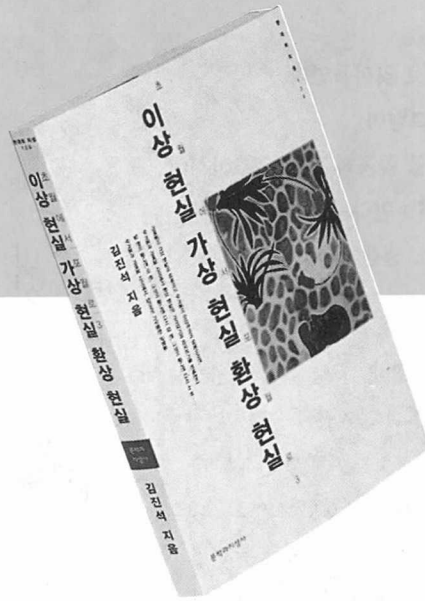
특히 중국기록에 보이는 수많은 외교관계 기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해진다. 지은이는 더 나아가 제명, 천지를 비롯한 많은 야마토왜의 왕들이 백제인이라 주장하고, 임신의 난 때 승리한 천무천황은 신라인으로 본다. 645년 소가씨를 주살한 것은 백제에서 파견된 중신겸족(中臣鎌足), 663년 백강구 전쟁의 왜군은 풍왕자의 군대. 《일본서기》에 나오는 일본선박의 해외도항기사와 고구려 사절의 내항기사, 신라관계 기사는 모두 허구고, 가야와 임나는 별개며, 가야멸망 이후에 임나기사가 나오는 것은 임나가 존재했다는 증거고 임나의 일본열도(대마도)설을 주장하는 등 그야말로 역사소설로서도 그려내기 어려운 지은이의 상상력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선행연구도 철저히 배제된 지은이의 독단적 논리에 따라 기술된 이 책은 지은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술서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사료의 오독은 물론이고 자신의 논리구조에 맞지 않는 사료는 조작으로 간주하고 자의적으로 조작해 나가는 사료해석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지은이가 10여년만에 120여편의 논문과 8권의 저서를 출간한 것을 ‘감개무량하다’고 감회어리게 술회한 것은 실로 자아도취적이다. 8권의 저서는 온통 중복으로 뒤섞여 있고 두세권의 책으로 족한 내용이다.●

진정한 현실 사유하려는 철학적 투지

《이상 현실 가상 현실 환상 현실》

김재인 | 서울대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진석 지음
문학과학지성사/A5신/336면/12,000원

모든 일은 현실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이 단순한 진실은 흔히 망각되거나 소홀히 다뤄져왔다. 철학이나 과학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랬다.

사람들은 현실에 대립되는 항을 설정하고 그것을 추켜올리곤 했다. 가령 하늘나라, 진리, 이상향, 사이버 스페이스 등. 이런 항들의 대표적인 이름이 이상과 가상이다. 하지만 이 둘은 짝패를 이룬다. 좋고 완벽하고 온전한 것이라 상정된 이상은 끊임없이 현실을 폄하한다. 반면 최근에는 이상 따위는 없으며 오직 가상만이 있다고 한다. 온통 진짜 대 온통 가짜다. 그러나 이 대립은 너무 경직돼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가 망설여진다. 그 둘은 거울상일 뿐이다.

지은이는 이 문제를 다른 판에 설정한다. '이상'이 아니라 '이상 현실', '가상'이 아니라 '가상 현실'. 이상은 이상 현실을 구성하는 한 요소고 가상은 가상 현실을 구성하는 한 요소다. 그리고 이상 현실과 가상 현실은 현실의 양태다. "이상과 가상은 현실을 초월하는 독립적인 실체도 아니고, 인간의 행위를 초월하는 순수한 의미도 아니"라고 말하는 지은이의 강조점은 바로 '현실'이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남는 현실에 '환상 현실'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요약정리될 수 없는 현실의 복잡성 사유해

현실에 대한 집요한 천착은 지은이가 이전의 다른 저서와 논문에서 지속적으로 해온 작업이다. 두번째 저서부터 지은이는 "초월에서 포월로"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사유를 펼치고 있는데, 《이상 현실 가상 현실 환상 현실》(문학과학지성사)은 그 세번째 권이다. 이 책의 중심개념인 '환상 현실'은 포월(超越)과 소내(疏內)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현실이다. 포월과 소내의 움직임은 다르

게 '기우뚱한 균형'이라는 표현을 입는다. 이 생소한 개념들은 새로우면서 중요한 만큼 상세한 해명을 요한다. 아니 그냥 해명이 아니라 '정확한 애매함'을 수반하는 해명을 요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해명이 '요약정리'의 방식으로 제시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초월에서 포월로'라는 기획도 단순히 요약정리되지 않는, 요약정리될 수 없는 현실을 대상으로 한다. '결국은' 어떠한 현실, '요약정리' 하면 어떠한 현실은 지은이가 보는 현실이 아니다. 그런 현실은 차라리 이상 현실이거나 가상 현실이다.

사람은 살다 보면 결국은 죽는다. 사는 것은 어쩌면 헛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은 이 '결국은'에도 불구하고, 이 '결국은'을 딛고 다시 일어난다. 일어나지 못하면 기기라도 한다. 이런 나아감, 이런 진행이 '포월'이다. 이 포월의 운동과 더불어 열리는 것이 '소내'다. 안으로 통하는 길을 뚫고 안으로 소통하는 운동. 사람은 천 가지 이유 때문에 쓰러지지만 겨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기도 한다. 사람은 그렇게 산다. 다시 산다.

지은이는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현실을 환상 현실이라 이름붙인다. 현실이 곧 환상 현실인 까닭은 그것이 기우뚱한 균형 속에서 '몸뚱이를 가진 허깨비'처럼 존재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은 이상 현실과는 다른 가상 현실을 발견하고 찬양했으나 현실에 최종적인 선, 논리적인 선을 긋는 것으로 만족했다. 이상 대 현실이 아니라 가상 대 현실. 그러나 논리적인 선은 논리적인 선일 뿐이다. 현실적인 선은 논리적인 선과는 달리 너무 촘촘하거나 너무 성기다. 현실의 선은 많은 비약과 우회도 포함한다. 이상과 가상은 그 현실의 선을 너무 단순화하고 총체화하는 데서 성립했다.

'짝패' 적 사유 우회적으로 비판해

지은이는 여러 사례를 통해 현실에 대한 단순한 이해가 어떤 자가당착에 빠지는지 잘 보여준다. '육체의 움직임, 토끼와 거북의 경주, 스포츠, 이동통신, 노인'에 대한 '정확한 애매함'을 지닌 분석은 이 책의 백미다.

또 이 책은 현재진행형 사유를 보여준다. 최종적인 평가는 나중에야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평가가 요약정리하는 평가에 불과하다면 그 대신 많은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 지은이는 자신의 외로운 작업에 개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에 불만을 토로한다. 아주 유의미한 그의 사유에 이토록 개입이 적은 것은 이 땅의 사유가 요약정리 또는 명확한 가르기에만 익숙한 탓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런데 우리말로 '환상 현실'이라는 개념이 아무래도 너무 '긍정적인 균형'을 향한다는 느낌은 평자의 범박함 때문일까 아니면 과민함 때문일까? ●